

3차 추경 '착착'... 통합당은 '착잡'

예결위, 조정소위 열어 35조3000억원 세부심사 대학 등록금 간접지원 논의 통합당, 장외 비판 가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꾸려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1일 오후 가동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단독 원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장외에서 추경안 문제점 지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이날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한 뒤 다음날까지 증액 예산을 이어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전날 예비심사를 완료, 정부 추경안에 더해 총 3조1천억원의 증액안 상태다.

예산소위는 이 가운데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며 반대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증액 요구가 많아 감액을 추가로 해야 할 상황"이라며 "상임위서 증액된 액수를 받아들이는 어렵기에 불요불급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소위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박홍근, 김원이, 위성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조성식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통합당 측은 자리는 비어있다.

추경 심사 보이콧 방침을 세운 통합당은 장외에서 기자회견 등으로 추경안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JTBC '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35조를 각본대로, 청와대와 정부의 요청대로 하는데 우리가 들리리 설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끝까지 야당이 불참한다면 여당만으로 구성된 조정소위가 최종 심사안을 확정, 예결

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도 통합당의 의정 참여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태도는 어려운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7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조변석개하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려는 성찰과 변화다. 미래통합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美 대선 전 북미회담 성사 전력" 韓-EU 화상 정상회담 발언... "백악관과 긴밀하게 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간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가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 데 감사드린다"며 "북미간 대화 노력에 있어 EU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나 북한과 물밑에서 조율한 바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연립국 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간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화상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국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윤석열 측근 감싸기, 국민이 용서 안해"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관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으로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이 스스로 약속도 어기고 예규도 어기면서 자문단 소집 신청권이 없는 피의자의 소집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눈을 감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검찰의 행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 이뤄질 경우 국민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중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사집중'에서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들도 설득 못 하는 일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지금 자신의 측근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눈을 감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검찰의 행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제

김동철, 광주 국회의원 10명에 정치자금 기부

김동철 전 광주 광산구 국회의원이 최근 자신의 정치자금을 광주지역 여야 국회의원 10명에게 기부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임기를 마친 뒤 남은 정치자금 4000만원을 지역 국회의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뜨겁게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8개 지역구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10명에게 200~3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후원했다.

특히 아직 후원을 꾸리지 못한 초선 의원들에게는 따로 후원금을 늘려주는 세심함도 보였다. 또 김 전 의원은 남은 2000만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맡아 일하면서 늘 정치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고, 지난 총선에서 경쟁은 했지만 모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후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정치권을 떠나 젊은 정치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정치학교'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재배 전 국회의원도 20대 국회 마지막 급여 850여만원을 광주 서구에 기부해 경로 식당 6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들 경로 식당은 지난 2월 운영 잠정 중단 전까지 하루 평균 1200여명의 노인이 이용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남은 2000만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맡아 일하면서 늘 정치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고, 지난 총선에서 경쟁은 했지만 모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후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정치권을 떠나 젊은 정치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정치학교'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재배 전 국회의원도 20대 국회 마지막 급여 850여만원을 광주 서구에 기부해 경로 식당 6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들 경로 식당은 지난 2월 운영 잠정 중단 전까지 하루 평균 1200여명의 노인이 이용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남은 2000만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맡아 일하면서 늘 정치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고, 지난 총선에서 경쟁은 했지만 모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후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정치권을 떠나 젊은 정치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정치학교'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재배 전 국회의원도 20대 국회 마지막 급여 850여만원을 광주 서구에 기부해 경로 식당 6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들 경로 식당은 지난 2월 운영 잠정 중단 전까지 하루 평균 1200여명의 노인이 이용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남은 2000만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맡아 일하면서 늘 정치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고, 지난 총선에서 경쟁은 했지만 모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후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정치권을 떠나 젊은 정치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정치학교'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재배 전 국회의원도 20대 국회 마지막 급여 850여만원을 광주 서구에 기부해 경로 식당 6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들 경로 식당은 지난 2월 운영 잠정 중단 전까지 하루 평균 1200여명의 노인이 이용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남은 2000만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맡아 일하면서 늘 정치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고, 지난 총선에서 경쟁은 했지만 모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후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정치권을 떠나 젊은 정치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정치학교'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재배 전 국회의원도 20대 국회 마지막 급여 850여만원을 광주 서구에 기부해 경로 식당 6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들 경로 식당은 지난 2월 운영 잠정 중단 전까지 하루 평균 1200여명의 노인이 이용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남은 2000만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맡아 일하면서 늘 정치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고, 지난 총선에서 경쟁은 했지만 모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후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정치권을 떠나 젊은 정치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정치학교'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재배 전 국회의원도 20대 국회 마지막 급여 850여만원을 광주 서구에 기부해 경로 식당 6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들 경로 식당은 지난 2월 운영 잠정 중단 전까지 하루 평균 1200여명의 노인이 이용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남은 2000만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맡아 일하면서 늘 정치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고, 지난 총선에서 경쟁은 했지만 모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후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정치권을 떠나 젊은 정치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정치학교'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재배 전 국회의원도 20대 국회 마지막 급여 850여만원을 광주 서구에 기부해 경로 식당 6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들 경로 식당은 지난 2월 운영 잠정 중단 전까지 하루 평균 1200여명의 노인이 이용했다.

민주 '일하는 국회법' 당론 채택 7월국회서 처리

불출석 의원 공개·상시 국회 제도화·법사위 권한 축소 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지구 심

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지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북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지구 심

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들도 완료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위해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추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 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스 20일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한상현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통합당, 상임위 강제 배정 현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3명 의원 전원은 1일 "국회회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법·무효"라며 박병석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은 청구서에서 "국회법상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15일과 29일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 구성에 관해 교섭단체 간 협의하는 중 통합당 의원 전체를 강제배정한 것은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립국 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